

■ 주요 뉴스: 이란 사태, 미국 강경 발언 이어지며 분쟁 장기화 및 고유가 우려 확대

- 미국 '25.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속보치의 절반 수준인 0.7%로 하향
- 미국 1월 근원 PCE 인플레이션, 전월 3.0%→3.1%(yoy)로 상승
- 유로존 1월 산업생산, 예상치(+1.3%) 밑돌며 전년동월비 1.2% 감소

■ 국제금융시장: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 유가 상승, 미국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이 영향

주가 하락[-0.6%], 달러화 강세[+0.8%],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고유가 우려, GDP성장률 둔화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사태,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며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상승
독일 국채금리도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며 3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502.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503.8원. 0.67% 상승). 한국 CDS 상승

		3/13일	3/12일	전일대비			3/13일	3/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32.2	6,672.6	-0.61%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6%	+2bp
	유럽	595.85	598.86	-0.50%		독일	2.98%	2.96%	+3bp
	중국	4,095.4	4,129.1	-0.82%		영국	4.82%	4.77%	+5bp
	일본	53,820	54,453	-1.16%	CDS 5y	한국	29bp	28bp	+1bp
	한국	5,487.2	5,583.3	-1.72%		중국	50bp	49bp	+1bp
	달러지수	100.50	99.74	+0.76%	위험 지표	EMBI+	278	270	+8bp
환율	유로화	1,1417	1,1512	-0.83%		VIX	27.19	27.29	-0.37%
	엔화	159.73	159.35	-0.24%		WTI유	98.71	95.73	+3.11%
	위안화	6.9037	6.8808	-0.33%	원자재	구리	572.8	583.9	-1.90%
	원화	1,493.7	1,481.2	-0.84%		금	5,019.5	5,079.2	-1.1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이란 사태, 미국 강경 발언 이어지며 분쟁 장기화 및 고유가 우려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Fox News 인터뷰에서 향후 일주일 동안 이란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탄약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 작전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가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첩언
-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발언. 전쟁 발발 이후 마·이스라엘 연합은 약 1만5천개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발사량은 약 90%, 자폭형 드론 공격은 약 95% 감소했다고 설명. 새로 선출된 이란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likely disfigured)도 언급
-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 운항 재개를 위해 이란과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접촉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 Bloomberg Intelligence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미국 등에 비대칭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드론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 신속한 분쟁 종료보다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
-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30일간 한시적으로 완화. 3월초 인도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한 조치.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러우 전쟁 종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 JP모건은 내주 말 기준 글로벌 원유 감산 규모가 하루 약 1,200만 배럴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RBC는 해당 분쟁이 봄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가가 '22년 러·우 전쟁 직후 기록한 \$128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5.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속보치의 절반 수준인 0.7%로 하향

- 미국 GDP 4분기 성장률(QoQ SAAR) 잠정치가 2월에 발표된 속보치(+1.4%)를 하회한 +0.7%로 집계. `25.3분기 성장률 +4.4% 대비 큰 폭 둔화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수출, 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의 하향 수정을 지목.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증가세가 속보치 대비 낮아졌으며 수입 감소폭도 속보치보다 제한적
- 한편, 1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3,212억달러(0.0%)로 예상치(+1.1%)를 하회.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56.6 → 3월 55.5로 위축되며 경기둔화 흐름이 부각

■ 미국 1월 근원 PCE 인플레이션, 전월 3.0%→3.1%(yoy)로 상승

- 에너지 및 식품가격을 포함하는 PCE 물가상승률은 전월 2.9%에서 2.8%로 하락. 예상치(2.9%)를 소폭 하회하나 연준 물가목표치(2%)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란 사태 이전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에 영향

■ 유로존 1월 산업생산, 예상치(+1.3%) 밑돌며 전년동월비 1.2% 감소

- 전월 대비로도 1.5% 감소하며 예상치(0.6%) 하회. 변동성이 큰 아일랜드가 큰 폭 감소한 영향이 컸으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12월 대비 감소하며 유로존 주요국 전반의 산업생산 부진을 시사

■ 블룸버그 서베이 참여자 연준 금리인하 전망 시점 3월 → 6월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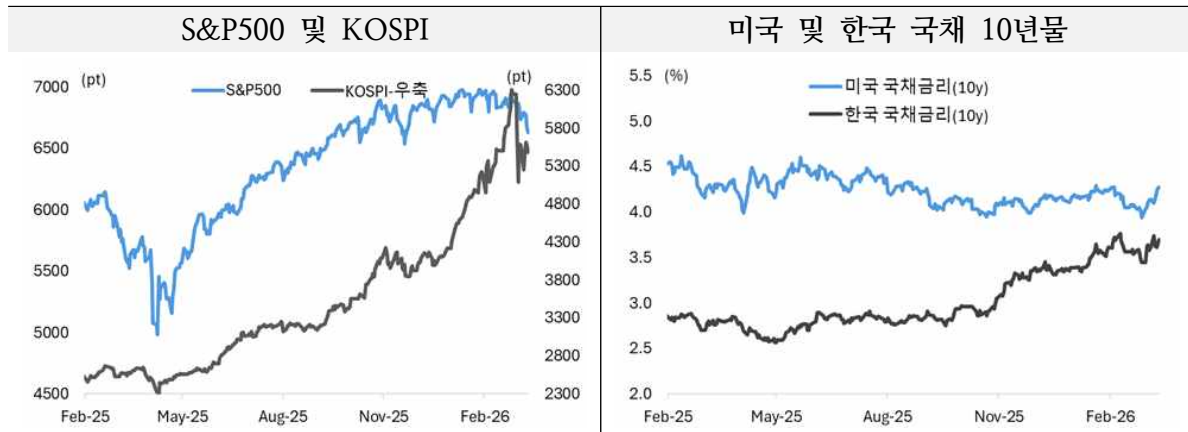
- 서베이에 따르면 연준이 현재 이중 책무(고용·물가) 양측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다수. 응답자의 64%가 실업을 관련 위험이 상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응답한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86%가 동일하게 응답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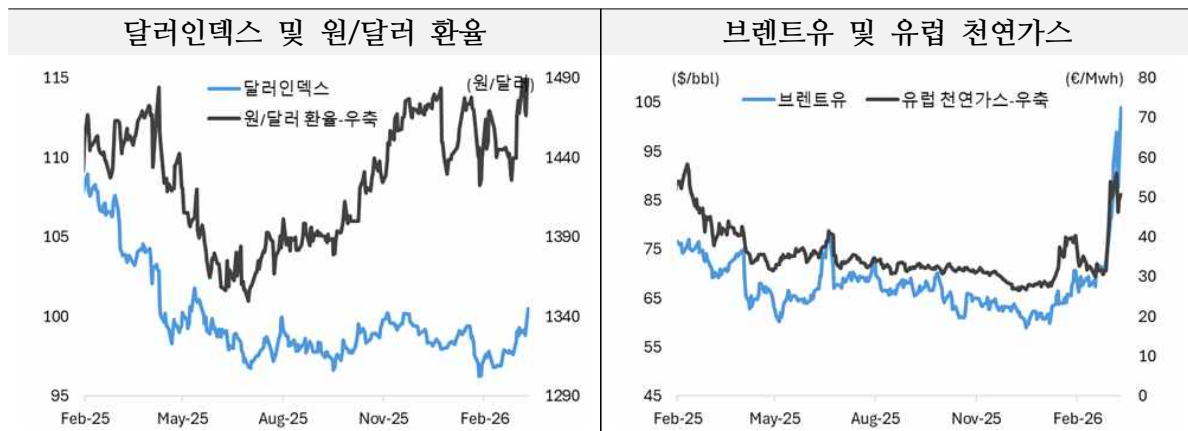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3/16일~2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산업생산(16일), 연준 FOMC 회의 결과(18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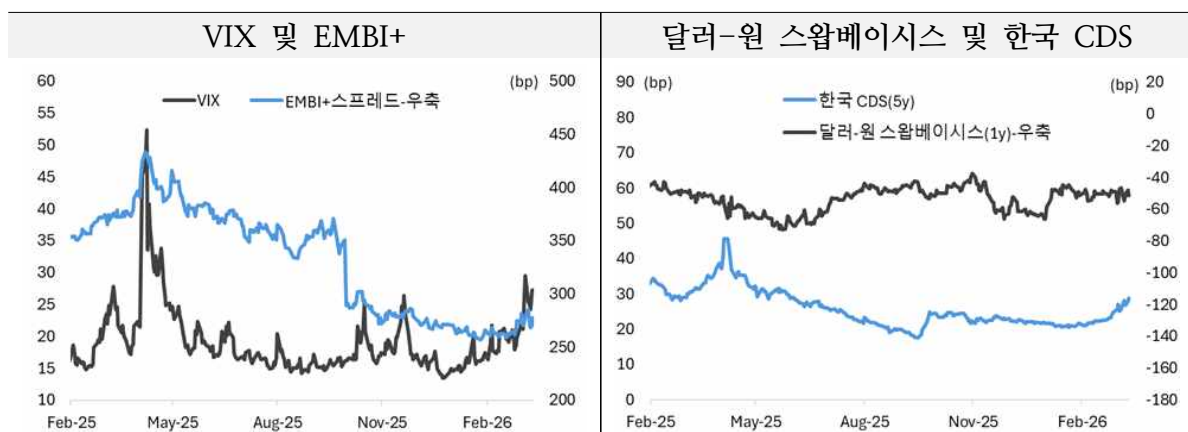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46, E-mail swshin@kcif.or.kr